

24-8

메타 윤리학에서는 도덕 문제가 특정 규범의 적용보다는 언어 분석을 통해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도덕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도덕 딜레마로 한번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트롤리 딜레마’라고 아시지요? 이론 규범 윤리학이나 실천 윤리학 같은 규범 윤리학에서는 트롤리 딜레마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겠습니까? 당연히 특정 규범 이론을 바탕으로 트롤리 딜레마에 대한 당위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할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공리주의자라면 나는 공리주의 이론에 기반하여 최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 5명의 인부를 살리기 위해 1명의 인부를 희생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겠지요. 반면 내가 의무론자라면, 예컨대 칸트의 의무론을 바탕으로, 인간의 목숨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는 것인데 5명의 인부를 살리겠다고 1명의 인부를 희생시키는 것은 인간의 목숨의 가치를 계산하는 시도라고 비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메타 윤리학에서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트롤리 딜레마에 접근합니다. 예컨대,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운전자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라는 트롤리 딜레마에 대하여, 메타 윤리학자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 이 질문에서 애초에 ‘옳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옳다’라는 말 자체가 듣는 사람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 만약 옳다는 말을 그 상황에서 최대의 효용성을 낸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공리주의자들의 주장이 옳은 것이 되겠지. 반면 효용성과 무관하게 인간의 의무를 따르는 것을 옳음의 의미로 잡으면, 의무론자들의 주장이 옳은 것이 되겠지. 그렇다면 애초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옳냐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의미 없는 질문이 아닌가? 결국에는 듣는 사람이 옳음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그 대답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라는 식으로 도덕적 딜레마를 해소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도덕적 딜레마에 대해 고민하는 일 자체를 ‘언어 분석’을 통해 무의미한 일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도덕적 딜레마를 해소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메타 윤리학적 시도는, 특정 규범 이론에 근거하여 어떻게 행위하는 것이 옳다는 당위적인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도덕적 딜레마를 ‘해결’하고자 하는 규범 윤리학의 입장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것입니다.

18 6월 모의평가 1번 문항

메타 윤리학 제시문 中 : 나(메타 윤리학)는 윤리학의 문제가 올바른 대답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언어 분석으로 ‘해소’되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 따라서 윤리학의 주된 과제는 도덕 이론을 전개하거나 도덕적 신념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와 진술들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것이어야 한다.

25-1

메타 윤리학에서는 윤리학 자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윤리학의 방법론적 조건을 탐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다른 윤리학과 달리 메타 윤리학에서는 윤리학이라는 학문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주의적 접근을 통해, 윤리나 규범이 존재하고 인식되며 탐구되는 방식, 그리고 윤리학이 학문으로서 성립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26 수능특강 정답과 해설 4쪽 1번 문항

문제분석 中 : 메타 윤리학은 윤리학의 목적을 도덕규범의 정립이나 체계화에 두지 않고 윤리학 자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윤리학의 방법론적·체계론적 조건을 탐구하고 그 원리를 확인하는 데 두어야 한다고 본다.

27-2

메타 윤리학과 마찬가지로 이론 규범 윤리학에서도 선악의 의미를 탐구합니다. 다만 메타 윤리학에서는 선악의 의미를 (1) ‘언어학’의 관점에서 (2) 가치 중립적으로 접근한다면(“‘선’이라는 단어와 ‘악’이라는 단어의 언어적·사전적 의미 규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이론 규범 윤리학에서는 선악의 의미를 (1) 도덕적 당위의 관점에서(“인간이 어떻게 행위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선하거나 혹은 악한 것일까?”) (2) 가치 지향적으로 접근합니다.

26 수능완성 정답과 해설 3쪽 2번 문항

나. 이론 윤리학은 선, 악의 의미를 가치 지향적으로 옳음 혹은 그름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선, 악의 의미를 가치 중립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윤리학의 주요한 과제로 보지 않는다.

21 3월 모의평가 1번 문항

ㄱ. 이론 규범 윤리학: 윤리학은 선과 악이 무엇인지에 관해 탐구해야 한다. (O)

27-9

실천 윤리학과 이론 규범 윤리학 모두 규범 윤리학이므로, 옳음과 그름의 기준이 되는 도덕 원리, 즉 ‘규범 이론’에 대한 탐구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이론 규범 윤리학이야 원래 규범 이론을 정립하고 제시하는 것이 윤리학의 주된 역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당연하지만, 실천 윤리학의 경우에도 현실의 도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규범 이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실천 윤리학에서는 규범 이론의 정립이 필요하기는 해도 그것을 윤리학의 주된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고, 윤리학의 주된 목표는 어쨌든 누군가 제시한 규범 이론을 ‘응용(적용)’하여 현실의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도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29-7

윤리학의 핵심 과제가 윤리학이 학문으로 성립 가능한지 검토하는 데 있다고 보는 것은 이론 규범 윤리학이 아니라 메타 윤리학입니다.

30-3

윤리학이 타 학문과의 학제적 접근을 통해 도덕 문제 해결에 주력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기술 윤리학이 아니라 실천 윤리학입니다. 애초에 기술 윤리학은 도덕 문제 해결에 주력해야 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30-4

기술 윤리학에서는 윤리학의 핵심 과제가 사회 계층의 도덕의식을 인과적으로 분석하여 서술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기술 윤리학은 다양한 사회를 돌며 각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도덕 현상, 실태, 관습 등을 인과적으로 관찰하여 객관적으로 서술하고자 하니까요. 사

회 계층이 가지고 있는 도덕의식을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입각하여 분석하고 기술하는 것 역시 기술 윤리학의 역할에 포함될 수 있겠네요.

26 수능완성 127쪽 1번 문항

① 기술 윤리학: 사회 계층의 도덕의식을 인과적으로 분석하여 서술하는 것이다. (O)

31-2

메타 윤리학에서는 윤리학이 규범의 존재론적 속성과 인식론적 속성에 대해 탐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24 수능 1번 문항

메타 윤리학 제시문: 윤리학은 규범적 속성의 존재론적·인식론적 지위를 탐구하고, 도덕적 용어의 의미를 분석하며, 도덕 추론의 규칙을 검토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31-9

소크라테스는 이해타산적인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표현 하나 알아갑시다. 이해타산적: 이로움과 해로움을 이리저리 따져 헤아리는.

소크라테스는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여 자기 자신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행동하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보편적 진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반성과 성찰에 기반하여 행위해야 합니다.

26 수능완성 8쪽 6번 문항

④ 소크라테스: 각 사람의 각 의견이 진리가 될 수 있으므로 이해타산적 삶을 살아야 한다. (X)

31-10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품성적 덕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과 습관화를 통해 후천적으로 형성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32-1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세상에는 그 자체로 나쁜 행위와 감정이 존재하며, 그것들에서는 중용, 즉 적절함의 상태를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그것들은 그 자체로 이미 나쁘니까요.

26 수능특강 정답과 해설 6쪽 8번 문항

②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행동과 감정에 중용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는 도둑질이나 거짓말과 같은 나쁜 행위에는 중용이 있을 수 없다고 보았다.

26 수능완성 5쪽 <자료와 친해지기>

해설 中 : 그(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어떤 것들의 경우에는 애초부터 나쁨과 묶여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감정과 모든 행위에 중용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질투, 심술 등의 감정이나 절도, 살인 등의 행위는 그 자체로 나쁜 것이다.

32-2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인간의 감정이나 행위가 악한 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 감정/행위가 너무 지나친 경우 ex) 만용
 - (2) 감정/행위가 너무 모자란 경우 ex) 비겁함
 - (3) 감정/행위가 그 자체로 나쁜 경우 ex) 살인, 절도, 질투
- 해당 선지의 경우 ‘인간의 감정과 행위에서 악하다는 것은 언제나 모자라지 않고 지나치다는 것’이라는 말이 잘못되었습니다.

32-3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최적의 상태는 중용 자체입니다. 즉 최적의 상태가 악덕과 중용 사이의 중간에 위치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최적의 상태로서의 중용이 ‘지나침’의 악덕과 ‘모자람’의 악덕, 다시 말해 두 악덕 사이의 중간에 위치해 있다고 해야겠습니다.

26 수능완성 9쪽 7번 문항

⑤ 아리스토텔레스 : 악덕 자체와 중용 사이의 중간인 최적의 상태를 지향할 것을 고려하여 행위하세요. (X)

33-3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인간의 행위뿐만 아니라 인간의 정념, 즉 인간의 감정에도 지나침, 모자람, 중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본래 지나침, 모자람, 그리고 중간(중용)이란 인간의 감정과 행위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6 수능완성 5쪽 <자료와 친해지기>

아리스토텔레스 자료 中 : 마땅히 그래야 할 때, 또 마땅히 그래야 할 일에 대해, 마땅히 그래야 할 사람들에 대해, 마땅히 그래야 할 목적을 위해, 또 마땅히 그래야 할 방식으로 감정을 갖는 것은 중간이자 최선이며, 바로 그런 것이 탁월성에 속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행위와 관련해서도 지나침과 모자람, 그리고 중간이 있다. 그런데 탁월성은 감정과 행위에 관련되고, 이것들 안에서 지나침과 모자람이 잘못을 범하는 반면에, 중간적인 것은 칭찬을 받고 옳곧게 성공한다. 이 양자가 탁월성에 속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탁월성은 중간적인 것을 겨냥하는 한, 일종의 중용이다.

33-5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중용은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적절함이기며, 최선, 즉 잘 해냄의 차원에서는 극단입니다(즉 최선의 극단이고, 잘 해냄의 극단입니다).

26 수능완성 정답과 해설 4쪽 7번 문항

문제분석 中 :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중용은 악덕을 기준으로 하면 중간의 최적의 상태이지만, 도덕적 가치를 기준으로 하면 최선의 것과 잘 해냄의 극단이다.

33-6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물론 덕은 후천적 형성의 대상입니다만, 인간의 이성적 능력은 인간이 타고나는 본성이자 인간의 고유한 기능입니다.

33-8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절제 있는 사람은 즐거움이 가지는 가치, 딱 그만큼 즐거움을 좋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절제’ 있는 사람인 것

입니다.

33-9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용기의 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아예 안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적절한 방향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도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23 수능 4번 문항

ㄹ. 아리스토텔레스 : 아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움의 감정을 갖지 않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도록 개발하세요. (X)

34-3

밀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라고 하지, 언제나 소수의 의견을 수용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소수의 의견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그 소수의 의견을 참된 진리로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34-4

밀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특히 토론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로운 토론이 활성화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26 수능특강 12쪽 8번 문항

제시문 中 :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토론과 경험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34-8

밀에 따르면 꼭 소수 의견이 진리는 아니더라도, 그것이 진리 일부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며, 설령 나중에 소수 의견과 대립되는 다수 의견이 진리였음이 밝혀지게 되더라도, 소수 의견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다수 의견의 진리성을 더욱 완전하고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로운 토론의 유용성이 소수 의견의 진리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소수 의견이 진리가 아니더라도, 소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자유로운 토론은 충분히 사회적 유용성을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26 수능완성 정답과 해설 3쪽 4번 문항

① 中 : 밀은 소수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과 대립할 때, 다수의 의견이 맞다는 점이 드러나면 이는 기존 진리를 확실히 한다는 점에서, 소수의 의견이 맞다는 점이 드러나면 이는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는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34-10

밀에 따르면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는 진리 획득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26 수능완성 정답과 해설 3쪽 4번 문항

문제분석 中 : 그(밀)는 인간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고,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진리에 더 가깝게 다가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35-3

벤담 역시 자신의 쾌락을 증가시키지 못하더라도 다수의 쾌락을 증가시켰다면 도덕적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35-5

칸트에 따르면 인간이 도덕 법칙을 따르는 행위는 내적 강제에 따르는 '강제적인' 행위이자 동시에 '자율적인' 행위입니다. 강제와 자율이 동시에 양립 가능하게 되는 이유는, 칸트가 보기에 인간의 도덕적 행위는 내적 강제에 따른다는 점에서 분명히 강제적이지만, 동시에 그 강제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오는 것이기에, '타율적'이지 않고 '자율적'이라고 말하는 것 역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26 수능완성 정답과 해설 6쪽 9번 문항

ㄱ. 칸트에 따르면 선의지에 입각한 행위는 행위자의 사적인 이해관계를 전혀 넣지 않고, 의무에서 말미암아 행

위하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행위를 도덕적 행위라고 보았고, 이는 보편적 도덕 법칙의 강제에 행위자가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자율적 행위라고 보았다.

35-6

칸트에 따르면 개인의 준칙 중 보편화될 수 있는 준칙은 도덕 법칙이 되고, 도덕 법칙에 따른 행위는 도덕적 행위가 되므로, 개인의 준칙에 따른 행위는 도덕적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36-3

불교에 따르면 불성은 인간만의 특성이 아니라 모든 중생, 즉 모든 생명체가 공유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생명체가 평등하다고 봅니다.

25 9월 모의평가 2번 문항

① 석가모니: 삶과 죽음의 순환인 윤회(輪廻)는 인간에게만 적용된다. (X)

36-5

공리주의에서 중시하는 것은 행위의 의도가 아니라 결과이기 때문에, 벤담의 입장에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실현하려는 의도로 행해졌어도 실제로 결과적으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실현되지 않았다면 그 행위는 도덕적 행위가 되지 못합니다.

36-8

칸트에 따르면 행복의 원리가 준칙의 기반이 될 수는 있습니다. 어차피 준칙 중에서 보편화될 수 있는 일부 준칙만이 도덕 법칙이 되는 것이므로, 준칙의 기반이야 무엇이든 다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만들어진 준칙이 보편화될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36-9

벤담, 밀, 칸트 모두 타인의 행복을 증진하는 행위가 도덕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벤담과 밀의 경우에는 그 행위가 타인의 행복을 증진하는 동시에 사회 다수의 행복을 증진하는 행위라면 도덕적일 수 있습니다. 칸트의 경우에는 그 행위가 결과적으로 타인의 행복을 증진하는 동시에 선의지에서 비롯된 행위라면 도덕적일 수 있습니다.

36-10

칸트와 밀 모두 개인이 자기 자신의 행복 추구라는 동기에 따라 행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칸트의 경우에는, 자기 자신의 행복 추구라는 동기에 따라 행위하였다면 그 행위가 최소한 도덕적 행위는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칸트의 입장에서는 오직 선의지와 의무 의식에서 비롯된 행위만이 도덕적일 수 있습니다.

37-4

매킨타이어는 보편적 도덕 원리에 따라 행위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 공동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행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37-9

공자와 노자 모두 법과 제도만으로 통치하는 것은 최선의 정치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공자의 경우, 통치할 때 법과 제도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군주가 덕을 통해 백성을 도덕적으로 감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며, 군주가 법과 제도만으로 통치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26 수능완성 정답과 해설 36쪽 3번 문항

문제분석 中: 공자는 제도나 형벌보다는 도덕과 예의로 백성을 교화하는 정치를 강조하였다.

26 수능완성 정답과 해설 36쪽 3번 문항

⑤ 공자와 노자는 모두 법과 제도만으로 통치하는 것을 최선의 정치로 보지 않았다.

38-3

칸트에 따르면 특정한 목적에 대한 수단적인 선을 제공하는 것은 가언 명령입니다. 따라서 정언 명령이 언제나 특정한 목적에 대한 수단적인 선을 제공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26 수능완성 정답과 해설 40쪽 3번 문항

ㄹ. 칸트는 목적에 대한 수단적인 선을 제공하는 명령을 가언 명령이라고 보았다.

39-1, 39-2

37-9 해설 참고

‘A보다 B이다’와 ‘A가 아니라 B이다’는 서로 다른 논리 구조입니다.

‘A보다 B이다’가 맞으려면, 사상가가 A와 B를 둘 다 긍정하더라도 강조점이 A보다 B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반면 ‘A가 아니라 B이다’가 맞으려면, A는 확실하게 아니고 오직 B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 사상가가 A와 B 둘 다 긍정한다면 ‘A가 아니라 B이다’는 맞은 말이 될 수 없습니다.

24 9월 모의평가 9번 문항 ㄱ 선지를 예시로 들어 볼까요?
베카리아: 범죄 억제력은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도에서 나온다. (X)

베카리아의 입장에서 범죄 억제력은 형벌의 지속도에서 주로 나오지만 강도에서도 나오기는 하기에,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 출제되었지요. 그러나, 만약 선지가 이렇게 출제되었다면?

베카리아: 범죄 억제력은 형벌의 강도보다는 지속도에서 나온다. (O)

그렇다면 적절한 선지가 되었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공자: 군주는 법과 제도가 아니라 덕으로 통치해야 한다. (X)

공자: 군주는 엄격한 법과 제도보다는 덕으로 통치해야 한다. (O)

39-4

칸트는 자연적 경향성을 동기로 행위하였다면, 그것이 아무리 결과적으로 의무와 일치하더라도 동기가 순수하게 선하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 행위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39-5

칸트는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의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칸트에 따르면, 의무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도덕적으로 행위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의 실제 수준을 극단적인 불행의 수준까지 떨어트리지는 않는 것(물론 의무가 문제되는 상황이 아니라 평소 일상에서 불행을 방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는)은 인간의 간접적 의무 중 하나가 됩니다.

추가로, 그러나 칸트의 입장에서 자신의 행복만을 촉진하는 것이 인간의 ‘직접적’ 의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자연과 윤리 파트에서 배우듯이, 칸트가 보기에 동물 학대 금지든 그 자체로든 직접적 의무가 될 수 없으며, 오직 간접적 의무만 될 수 있지요. 마찬가지로입니다. 모든 간접적 의무는 직접적 의무를 위해 존재하지만, 그 자체로 직접적 의무가 될 수는 없습니다.

26 수능완성 정답과 해설 47쪽 16번 문항

④ 칸트는 도덕과 행복은 양립 가능하며, 다만 도덕을 추구할 때 행복이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또한 인간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간접적 의무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39-6

공리주의에서는 자신의 이익은 고려하지 않는 대신 타인의 이익만을 고려하여서는 안 되고, 자신과 타인을 비롯하여 모든 이해 당사자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40-2

38-3 해설 참고

40-7

칸트에 따르면 도덕과 행복은 양립 가능합니다. 첫째, 도덕적 행위의 결과로 개인의 행복이 증진될 수 있습니다(36-9 해설 참고). 둘째, 도덕적 행위를 위해 평소에 자신의 행복을 증진하는 것은 인간의 간접적 의무

중 하나입니다(39-5 해설 참고).

26 수능완성 정답과 해설 47쪽 16번 문항

④ 칸트는 도덕과 행복은 양립 가능하며, 다만 도덕을 추구할 때 행복이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또한 인간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간접적 의무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40-8

칸트는 의무에 어긋나는 모든 행위는 도덕적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의무에 어긋나는 그러한 행위가 유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유용하더라도, 당연하지만, 칸트의 입장에서 애초에 도덕 판단의 기준은 유용성이 아니므로, 그러한 행위가 결코 도덕적 행위가 될 수는 없습니다.

40-9

벤담은 공리의 원리에 일치하는 행위가 곧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26 수능완성 정답과 해설 51쪽 12번 문항

ㄷ. 벤담에 따르면 공리의 원리에 일치하는 행동은 항상 마땅히 해야 할 행위이다.

41-1

맹자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선한 본성을 타고나는 일환으로 도덕적 지각 능력[良知]과 도덕적 실천 능력[良能]을 선천적으로 타고납니다. 즉 맹자가 보기에 도덕적 지각 능력은 애초에 노력을 통해 형성해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26 수능완성 130쪽 14번 문항

① 맹자 : 인간은 도덕적 지각 능력과 실천 능력을 선천적으로 지닌다. (O)

41-7

맹자는 통치자가 차별 없는 사랑, 즉 겸애를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맹자는 유교 사상가로, 차

별적 사랑, 즉 별애를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사람에 대한 무차별적 사랑으로서 겸애를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묵가 사상이 묵자입니다.

41-10

벤담은 보편적 도덕 원리를 긍정하지요. 공리주의에서 제시하는 보편적 도덕 원리는 바로 ‘공리의 원리’입니다. 보편적 도덕 원리가 아닌 공동체의 전통에 부합하는 행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동체주의적 관점을 취하는 덕 윤리 사상이 매킨타이어입니다.

41-2

자연법 윤리에 따르면 ‘자연법’이란 태초부터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법입니다. 즉 자연법은 애초에 후천적 형성의 대상이 아닙니다.

41-4

아퀴나스는 인간이 본성의 법칙에 속하는 방식, 즉 영원법에 따라 그 본성이 규정되고 지배받는 방식뿐만 아니라, 이성적인 방식으로 영원법에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때 이성적인 방식으로 영원법에 참여한다는 것은 영원법의 내용을 이성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연법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두 가지 방식으로 영원법에 참여할 수 있으며, 따라서 해당 선지의 경우 ‘아니라’라는 말이 잘못되었습니다.

26 수능특강 20쪽 자료 플러스

아퀴나스 자료 : 자연의 만물은 영원법에 종속되어 있다. 인간은 영원법에 특별한 방식으로 따른다. 즉 인간은 신이 심어 놓은 본성의 법칙뿐 아니라 더욱 적극적인 방식으로 영원법의 섭리에 참여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즉 신의 섭리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동시에 신의 섭리에 따를 행위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이성적 존재인 인간의 영원법에 대한 참여가 바로 자연법이다.

41-5

노자에 따르면 도(道)는 형체가 없으며, 인간은 도를 감각 경험으로 체험할 수도, 언어로 규정할 수도 없습니다.

26 수능특강 19쪽 <개념 플러스>

노자는 도(道)를 우주 만물의 근원이자 생성 변화의 법칙으로 파악하였다. 그는 『도덕경』에서 “말하여진 도는 참다운 도가 아니며, 이름 지어 불린 이름은 참다운 이름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도란 형체가 없고 인간의 감각 경험을 넘어선 것,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고 이름 지을 수도 없는 것, 지식을 쌓아 올리는 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겼다.

41-10

칸트에 따르면 보편화되지 않는 준칙은 도덕 법칙이 될 수 없지만, 명령의 형식으로 표현될 수는 있습니다. 예컨대 도덕 법칙이 되지 못하는 준칙은 가언 명령, 즉 조건부 명령의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반면 보편화되는 준칙, 즉 도덕 법칙은 무조건 ‘정언 명령’의 형식으로만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칸트의 주장입니다.

42-6

장자에 따르면 애초에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바라보면 귀천의 구별이 생기지 않습니다(즉 만물의 평등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자기는 귀하고 남은 천합니다(즉 귀천의 구분이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 세속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귀하고 천한 것은 자기에게 달려 있지도 않고, 남에게 달려 있게 됩니다. 이는 남이 귀하다고 하면 그것이 귀하다고 생각하게 되고, 남이 천하다고 하면 그것이 천하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해당 선지의 경우 세속적인 입장에서 만물을 바라보았는데 귀천이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게 된다는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44-4

석가모니는 삼독에 도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삼독은 열반의 경지에 오르는 것을 방해하는 세

가지 독, 즉 탐욕, 성냄, 어리석음입니다. 석가모니가 보기에 삼독은 도달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제거해야 할 대상입니다.

44-5

벤담도 자신과 타인의 행복을 모두 증가시킨 행위만이 도덕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벤담에 따르면 자신과 타인의 이익을 모두 평등하게 고려한 결과, 다수의 이익이 증가되었다면 도덕적입니다. 즉 반드시 모든 사람의 이익이 증가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참고로, 이는 나중에 분배 정의 파트에서 벤담과 롤스의 차이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벤담은 분배 결과 다수가 이익을 볼 수 있다면 소수는 희생되어도 괜찮다고 보지만, 롤스는 차등의 원칙에서 비롯된 호혜성의 이념을 바탕으로, 오직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불평등만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을 용인하는 공리주의를 비판합니다.

44-6

아퀴나스에 따르면 애초에 완전한 행복은 현세가 아니라 내세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아퀴나스는 기독교 사상가이므로, 내세에서 신의 구원을 통해서만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모든 기독교 사상가의 기본 입장입니다.

44-7

아퀴나스와 칸트 모두 인간의 바람직한 행위가 이성에 근거한다고 봅니다. 특히 아퀴나스에 따르면 인간의 바람직한 행위는 인간의 이성, 즉 자연법에 근거합니다.

44-10

벤담과 밀 모두 사회 전체의 행복이란 개인의 행복의 총합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즉 공리주의에서는 기본적으로 개인주의적 관점을 취하며, ‘공익’이란 ‘사익’을 모두 합친 것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해당 선지의 경우

‘개인의 행복의 총합을 초과하는 사회 전체의 행복’이라는 말이 잘못되었습니다.

45-3

칸트에 따르면 준칙은 무엇이든 기반으로 삼을 수 있으며, 모든 준칙이 도덕적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즉 칸트가 보기에 어떤 것이 행위의 준칙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에 따라 행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5-4

석가모니에 따르면 불성은 인간이 타고나는 본성이지, 후천적 형성의 대상이 아닙니다.

45-5

석가모니에 따르면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고정불변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고, 항상적이지 않습니다(즉, 무상합니다). 이는 연기설에서 비롯되는, 세상의 모든 존재와 현상에 적용되는 근본 진리입니다.

45-6

석가모니에 따르면 무명은 아직 밝게 깨달음을 얻지 못한 어리석음의 상태로, 도달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입니다.

45-8

석가모니에 따르면 번뇌는 집착으로부터 비롯되는 온갖 상념을 가리키는 말로, 일으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45-9

공자에 따르면 인을 갖춘 사람은 준비친소와 시비선악의 기준에 따라 사람들을 차별적으로 올바르게 사랑하고 미워할 줄 압니다. 이처럼 공자는 『논어』에서 오히려 오로지 인을 갖춘 사람만이 타인을 진정으로 사

랑할 줄도 알고 미워할 줄도 안다고 말합니다(“子曰, 惟仁者, 能好人, 能惡人.”).

45-10

노자에 따르면 최고의 통치자는 백성의 존경과 선망을 받는 통치자도, 백성이 두려워하는 통치자도 아닌, 무위, 즉 아무것도 하지 않음에 기반한 정치를 하기 때문에 백성이 통치자의 존재조차 모르거나 아니면 통치자의 존재 정도만 알도록 하는 통치자입니다(“太上不知有之 / 其次親而譽之 / 其次畏之 / 其次侮之. 최상의 도는 통치자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것이고(혹은 통치자의 존재만을 겨우 아는 것이고) / 그다음은 통치자와 친하고 통치자와 즐기는 것이고 / 그다음은 통치자를 두려워하는 것이고 / 그다음은 통치자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26 수능완성 정답과 해설 21쪽 10번 문항

ㄱ. 노자는 가장 좋은 통치는 백성이 군주가 있다는 것만 알도록 하는 것이며, 백성이 군주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은 올바른 정치가 아니라고 주장하여 정치에서도 무위의 실현을 강조하였다.

46-2

밀은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질적으로 낮은 쾌락과 질적으로 높은 쾌락 중에는 질적으로 높은 쾌락을 선호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렇다고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질적으로 낮은 쾌락을 아예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질적으로 낮은 쾌락은 육체적 쾌락으로 대표되는데, 사람이 살아가려면 당연히 육체적 쾌락도 추구를 해야 합니다. 또한 밀도 공리주의 사상가이기 때문에, 어쨌든 모든 쾌락이 선임을 인정합니다. 즉 밀에 따르면 질적으로 낮은 쾌락도 엄연히 선, 질적으로 높은 쾌락도 모두 선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정상적인 인간이라고 해서 질적으로 낮은 쾌락은 아예 추구하지 않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46-9

석가모니에 따르면 인간은 깨달음을 통해 모든 번뇌와 속박과 고통에서 해방된 상태에 도달할 수 있으며, 그

상태가 바로 윤회를 끊어낸 경지, 즉 해탈(열반)의 경지입니다.

47-6

유교에 따르면 서는 인을 실천하는 방법 중 한 가지로, 역지사지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ex) “내가 하기 싫으니까 남도 하기 싫겠지? 그럼 내가 해야겠다.” 해당 선지의 경우 다른 사람의 마음을 미루어 자신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순서가 바뀌어야 합니다.

49-6

45-2 해설 참고

49-8

매킨타이어는 기본적으로 덕을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닌, 후천적으로 형성해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매킨타이어에 따르면 덕 있는 사람이 할 법한 행위를 반복하여 습관화함으로써 덕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26 수능특강 정답과 해설 7쪽 7번 문항

① 매킨타이어는 도덕적 덕이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습관화를 통해 후천적으로 형성된다고 보았다.

50-6

노자에 따르면 무위, 즉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을 이룹니다(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그 무엇도 실패하지 않게 되므로).

50-9

칸트에 따르면 선의지는 선이 선이라는 이유로 선을 추구하는 의지이므로, 그 자체로 무제한적으로 선한 의지입니다. 선의지가 목적 달성에 기여할 때마다 유

용성에 기반하여 그 가치가 무제한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26 수능특강 24쪽 5번 문항

칸트 제시문 中 : 선의지는 어떤 목적 달성에 쓸모 있기 때문에 선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선한 것이다. 유용성이니 무익함이니 하는 것은 선의지가 지닌 가치에 아무 것도 증감시킬 수 없다.

51-1, 51-2, 51-3

진화 윤리학에서는 이타적으로 행위하는 것이 인간 자신에게 이로우며, 그렇게 이타적으로 행위한 인간들이 살아남아 지금의 인류가 된 것이므로 윤리란 생물학적 적응의 산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진화 윤리학에서는 진화의 결과로 인간이 이타적 성향과 도덕성을 지니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개인의 자유 의지에 따른 자발적 선택의 결과로 인간의 도덕적 행위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26 수능특강 7쪽 8번 문항

진화 윤리학 제시문 : 인간의 이타적 행동과 도덕성은 수백만 년 동안 자연 선택을 통해 이루어진 진화의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이타적 행위는 자유 의지에 따른 선택의 결과가 아닙니다. 인간은 자신의 생존과 번식 혹은 자기 유전자를 복제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26 수능특강 정답과 해설 7쪽 8번 문항

③ 진화 윤리학은 인간의 이타적 행위가 자신의 생존과 번식 등에 도움을 주어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타적으로 행동한다고 본다.

52-1, 52-2

벤담과 밀 모두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이해 당사자들의 쾌락을 공평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 모든 이해 당사자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비단 싱어뿐만 아니라 모든 공리주의 사상가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이해 당사자의 쾌락을 동일하게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이해 당사자의 동일한 쾌락을 동등하게 취급하되, 결과적으로는

다수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면 소수의 이익은 희생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처음에 고려 자체는 동등하고 평등하게 하되, 결과적으로 대우는 상이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6 수능특강 정답과 해설 9쪽 8번 문항

ㄹ. 벤담과 밀은 모두 공리주의자로서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의 쾌락을 공평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26 수능완성 정답과 해설 6쪽 10번 문항

⑤ 벤담과 밀 모두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니는 존재들의 쾌락과 고통을 동등하게 고려하는 것은 맞지만, 공리를 실현하는 바람직한 행위가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쾌락을 동일하게 보장하는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26 수능특강 27쪽 6번 문항

아퀴나스 제시문 : 자연법의 명령은 자연적 성향의 질서에 상응하는 계층적 질서로 설정된다. 제1의 자연 성향은 인간이 다른 모든 실체와 함께 소유하고 있는 자기 보존 본능이다. 제2의 자연 성향은 동물과 함께 소유하고 있는 성욕과 종족 보존 본능이다. 제3의 자연 성향은 인간만이 갖는 본능인데 그것은 선에 관한 진리를 알려 하고 다른 인간과 사회적 삶을 영위하려는 성향이다.

26 수능완성 정답과 해설 7쪽 12번 문항

문제분석 中 : 아퀴나스에 따르면 자연적 성향에는 모든 존재가 지닌 공통된 자연적 성향인 자기 보존 성향, 인간과 동물이 공통적으로 지니는 자연적 성향인 종족 보존 성향, 인간만이 지니고 있는 자연적 성향인 진리 추구 성향, 사회성 성향이 있다.

53-1

석가모니에 따르면 그 어떤 것도 고정불변할 수 없습니다. 인간을 이루는 다섯 가지 구성 요소인 오온(색, 수, 상, 행, 식)도 언제나 일시적으로 결합하여 인간을 임시로 이루고 있을 뿐이며, 인간이 죽을 때 오온은 흩어집니다.

53-3

45-6 해설 참고

53-4

45-5 해설 참고

53-6

아퀴나스에 따르면 인간과 다른 존재들은 자기 보존과 종족 보존의 자연적 성향을 공유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추가로 신과 사회에 대한 진리 탐구 성향, 그리고 사회 속에서 다른 인간들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사회적 성향도 타고나며, 이것들은 엄연히 인간만이 타고나는 자연적 성향들입니다. 즉 인간과 다른 존재들 간에는 자연적 성향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54-1

칸트는 행위의 결과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즉 칸트는 행위의 결과가 아무리 좋지 못하더라도 동기가 올바르다면 그 행위는 도덕적 행위가 되며, 행위의 도덕 판단을 할 때 행위의 결과는 애초에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해당 선지의 경우 ‘행위의 결과뿐만 아니라’라는 말 때문에 잘못되었습니다.

‘A뿐만 아니라 B이다’라는 논리 구조도 주의합시다. ‘A뿐만 아니라 B이다’가 맞으려면, 실제로 사상이 A와 B를 둘 다 긍정해야만 합니다.

24 수능 15번 문항 ㄷ 선지를 예시로 들어 볼까요?

테일러 : 생태계뿐만 아니라 개별 생명체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일 수 있다. (X)

테일러는 물론 개별 생명체를 도덕적 고려의 대상에 넣지만, 생태계는 안 넣으니까요. 그냥 별 생각 없이 흘려 읽으면 맞은 선지 같은데, 앞에 ‘생태계뿐만 아니라’라는 함정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유의합시다.

54-4

39-6 해설 참고

54-5

36-5 해설 참고

54-10

49-8 해설 참고

55-5

50-9 해설 참고

56-7

석가모니는 고통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쾌락만을 쫓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해탈뿐만 아니라 다른 중생들의 구제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애초에 불교는 공리주의처럼 쾌락 같은 관념에 그렇게 매달리거나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26 수능완성 정답과 해설 6쪽 7번 문항

ㄹ. 석가모니와 벤담 모두 개인적 쾌락만을 추구하는 삶을 주장하지 않았다. 석가모니는 연기를 자각하여 존재들 간의 상의성을 깨달을 것을 중시하였고, 벤담은 인간의 자연적 경향성을 토대로 사회적 쾌락의 총량을 극대화하여 공리를 실현하는 것을 중시하였다.

56-8

밀에 따르면 정신적 쾌락은 항구성, 안전성, 비용 등의 주변적인 장점에서 육체적 쾌락보다 우월합니다.

26 수능완성 15쪽 8번 문항

밀 제시문 中: 정신적 쾌락이 내재적 본질에서는 몰라도 항구성, 안전성, 비용 등의 주변적 장점에서는 육체적 쾌락보다 한결 더 우월하다.

56-9

매킨타이어는 모든 특수한 역사와 전통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37-4 해설 참고

57-5

매킨타이어, 밀, 칸트 모두 도덕적 정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윤리적 기준이 존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매킨타이어의 경우 그것이 행위자의 품성 혹은 공동선, 밀의 경우 공리의 원리, 칸트의 경우 도덕 법칙 혹은 선의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6 수능완성 정답과 해설 6쪽 8번 문항

ㄴ. 매킨타이어, 칸트, 밀 모두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윤리적 기준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애초에 해당 선지는 어떤 기준에 따라 도덕적 평가가 가능하다고 보냐는 것인데... 그것을 부정할 사상가가 있을까요?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는 도덕적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본다는 것인데... 그런 사상가가 우리 생운 교육과정에 등장할까요? 설마 해당 선지를 보편적 도덕 원리의 인정 여부를 물어보는 선지로 (상당히 자의적으로) 그렇게 읽으신 것은 아니겠지요? 매킨타이어는 보편적 도덕 원리를 긍정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물론 존재한다고 봅니다.

이런 건전한 선지는 사실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모든 생운 선지는 그 사상가의 입장에서 딱히 X라고 할 이유가 없으면 O가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57-8

칸트에 따르면 도덕 법칙은 선험적인 것입니다. 즉 후천적으로 경험하지 않아도, 경험에 앞서서 이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26 수능완성 16쪽 9번 문항

ㄷ. 칸트: 후천적 경험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보편적 도덕 법칙을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한다. (X)

26 수능완성 정답과 해설 6쪽 9번 문항

ㄷ. 칸트는 보편적 도덕 법칙이 인간에게 선험적으로 주어지며, 인간은 선험적으로 주어진 보편적 도덕 법칙을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보았다.

58-1

도가 사상이 장자는 물론 무지(無知)를 지향하지만, 석가모니와 맹자는 인간이 지혜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

장합니다. 특히 석가모니는 세 가지 학문법, 즉 삼학에서 계(계율), 정(선정), 혜(지혜)를 말합니다. 해당 선지의 경우 ‘석가모니와 달리’라는 말이 잘못되었습니다.

58-4, 58-5

장자에 따르면 궁극적으로는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바라봄으로써 만물의 평등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42-6 해설 참고

26 수능특강 19쪽 <자료 플러스>

해설 : 장자는 세상 만물의 근원인 도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면 선악(善惡), 시비(是非), 미추(美醜)의 분별은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장자는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평등하게 인식하는 제물의 경지를 추구하였다.

59-1, 59-2

칸트와 벤담 모두 인간이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려는 성향을 자연적으로 타고난다고 봅니다. 그러나 벤담은 그러한 자연적 성향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은 쾌락을 좋아하고 고통을 싫어한다. 그러므로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다’라는 도덕 원리를 도출하는 반면, 칸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의 선악은 쾌락과 고통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며, 쾌락을 추구하는 자연적 성향을 극복하고 선의지에 따라 행위했는지에 따라 행위의 도덕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26 수능완성 17쪽 11번 문항

ㄱ. A: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려는 성향을 토대로 선과 악을 구분해야 함을 간과한다. (O) (단, A는 벤담이 칸트에게 제기할 비판이다.)

26 수능완성 정답과 해설 7쪽 11번 문항

ㄱ. 벤담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려는 성향을 토대로 도덕 원리를 제시하였다. 칸트는 자연적 경향성에 입각한 행위가 의무에 맞는 행위는 될 수 있을지라도 의무로부터의 행위는 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적 경향성을 선과 악을 구분하는 토대로 보지 않았다.

59-3

칸트 역시 자기 자신을 보존하는 행위가 의무와 일치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59-4

칸트에 따르면 인간뿐만 아니라 신 역시 실천 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해당 선지의 경우 ‘신과 달리’라는 말 때문에 잘못되었습니다.

26 수능완성 정답과 해설 6쪽 9번 문항

문제분석 中 : 또한 칸트는 인간을 실천 이성만 지니고 있고 자연적 경향성을 지니지 않는 신과 다르고, 실천 이성은 없지만 자연적 경향성만 지니고 있는 동물과도 다르다고 보았다.

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10번 문항

칸트 제시문 中 : 선은 신을 포함한 모든 이성적 존재자에게 적용되고, 쾌적함은 이성이 없는 동물에도 적용되지만, 미는 오직 이성적 존재자인 동시에 동물이기도 한 인간에게만 적용된다.

59-5

칸트에 따르면 도덕적 행위는 보편적 도덕 법칙의 강제에 행위자가 복종하는 ‘자율적’ 행위입니다. 35-5 해설 참고

60-4, 60-5, 60-6

45-10 해설 참고